

치과 내원환자들의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

권미영

수원과학대학 치위생과

색인 : 구강건강수준, 구강검진, 구강건강관리

1. 서론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삶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행위를 실천하여야 한다.

건강행위는 단순히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나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에 들어와서 건강은 인간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이권요소의 한가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강의 일부로써 구강건강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¹⁾.

구강건강은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상실의 주요 원인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과 같은 대표적인 구강질환의 효과적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²⁾. 미국의 치주학회에서는 치주조직이 세균과 그 생성물, 염증과 면역 매개체들의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영향이 혈관을 통해 다른 신체기관에 작용하게 됨으로써 당뇨, 임산부의 저체중아 분만,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치주조직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³⁾.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질환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치면세균막의 관리가 중요하다. 치면세균막은 석회화의 과정을 거쳐 치석이 되고, 이러한 치석은 치주질환을 더욱 가속화시켜 구강건강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치면세균막의 형성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칫솔이나 그 외 적절한 구강위생용품 사용, 치면세마 및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

이에 구강건강인식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수도권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그 연관요인⁴⁾, 한국 성인의 구강건강인식에 관련된 요인⁵⁾, 구강상태와 전신건강과의 관련성⁶⁾, 구강보건 인식과 실천간

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⁷⁾, 치과병·의원 내원환자들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실태 분석⁸⁾, 치과병원 내원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실태⁹⁾ 등이 있으나 구강건강관리행태와 구강건강수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성인환자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를 조사하여 구강건강수준을 파악하고, 구강건강관리 행태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리행태 중에서 어느 요인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다음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성인의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치과의원에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내원한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사와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19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 1) 건강관리 및 구강건강관리행태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 2) 구강건강수준은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우식영구치율(DT rate), 충진영구치율(FT rate), 상실영구치율(MT rate)을 산출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cience)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 및 구강건강관리행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건강검진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관리행태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행태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행태를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다. 먼저 건강검진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50대는 92.3%, 40대 60.0%로 40, 50대이상에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20대가 91.1%, 30대 66.7%로 20-30대가 높은 비율로 조사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다음으로 건강교육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경우 50대가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20대가 9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 건강교육 유무는 40대, 50대가 주로 건강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1. 연령별 건강관리행태

	연령				전체(%)	p-value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건강검진 예	20(8.9)	3(33.3)	12(60.0)	12(92.3)	47(17.7)	<0.001
건강검진 아니오	204(91.1)	6(66.7)	8(40.0)	1(7.7)	219(82.3)	
건강교육 예	17(7.6)	2(22.2)	5(25.0)	4(30.8)	28(10.5)	0.004
건강교육 아니오	207(92.4)	7(77.8)	15(75.0)	9(69.2)	238(89.5)	
전체	224(100.0)	9(100.0)	20(100.0)	13(100.0)	266(100.0)	

3.2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먼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이 50대에서 5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에서 78.6%로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다음으로 치석제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84.6%, 40대에서 55.0%로 주로 40대와 50대에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치석제거를 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에서는 20대에서 66.5%, 30대에서 55.6%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마지막으로 구강위생 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대에서 88.9%, 20대에서 83.9%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2. 연령별 구강건강관리행태

	연령				전체(%)	p-value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구강 예	48(21.4)	3(33.3)	8(40.0)	7(53.8)	66(24.8)	0.018
검진 아니오	176(78.6)	6(66.7)	12(60.0)	6(46.2)	200(75.2)	
치석 예	75(33.5)	4(44.4)	11(55.0)	11(84.6)	101(38.0)	0.001
제거 아니오	149(66.5)	5(55.6)	9(40.5)	2(15.4)	165(62.0)	
구강 위생 용품 예	36(16.1)	1(11.1)	7(35.0)	6(46.2)	50(18.8)	0.010
아니오	188(83.9)	8(88.9)	13(65.0)	7(53.8)	216(81.2)	
전 체	224(100.0)	9(100.0)	20(100.0)	13(100.0)	266(100.0)	

3.3 건강검진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건강검진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구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률이 53.2%로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다음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치석제거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63.2%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에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표 3. 건강검진 유무별 구강건강관리행태

	건강검진		전 체(%)	p-value
	예(%)	아니오(%)		
구강 예	25(53.2)	41(18.7)	66(24.8)	<0.001
검진 아니오	22(46.8)	178(81.3)	200(75.2)	
치석 예	31(63.8)	70(15.1)	101(18.8)	0.001
제거 아니오	16(36.2)	149(84.9)	165(81.2)	
구강 위생 용품 예	17(36.2)	33(15.1)	50(24.8)	0.001
아니오	30(63.8)	186(84.9)	216(81.2)	
전 체	47(100.0)	219(100.0)	266(100.0)	

3.4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DT, MT, FT rate, DMFT index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먼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에서 DT rate가 30.7%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에서 MT rate는

24.6%, FT rate는 24.6%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마지막으로 DMFT index는 12.3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구강위생용품사용	DT rate	MT rate	FT rate	DMFT index
예(n=50)	30.7±4.42	24.6±2.51	24.6±2.51	12.3±0.77
아니오(n=216)	31.5±1.91	32.2±1.66	32.0±1.66	11.0±0.34
p-value	0.850	0.014	0.015	0.109

3.5 정기구강검진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정기구강검진 유무에 따른 DT, MT, FT rate, DMFT index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다. 먼저 정기구강검진을 한다는 응답자에서 DT rate가 20.8%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다음으로 정기구강검진을 한다는 응답자에서 MT rate는 28.8%, FT rate는 28.8%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DMFT index는 12.8로 정기구강검진을 한다는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5. 정기구강검진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정기구강검진	DT rate	MT rate	FT rate	DMFT index
예(n=66)	20.8±3.07	28.8±2.29	28.8±2.29	12.8±0.59
아니오(n=200)	34.8±2.05	31.4±1.76	31.3±1.76	10.7±0.36
p-value	0.001	0.452	0.424	0.004

3.6 치석제거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치석제거 경험 유무에 따른 DT, MT, FT rate, DMFT index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다. 먼저 치석제거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DT rate가 24.6%, FT rate는 27.1%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p<.05$). 다음으로 치석제거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MT rate는 27.1%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DMFT index는 12.2로 치석제거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6. 치석제거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치석제거	DT rate	MT rate	FT rate	DMFT index
예(n=101)	24.6±2.57	27.1±1.83	27.1±1.83	12.2±0.51
아니오(n=165)	35.5±2.31	33.0±2.01	32.8±2.01	10.6±0.38
p-value	0.003	0.056	0.048	0.012

4. 총괄 및 고안

치아우식증은 인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만성질환으로 일단 발생되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질병에 이완되기 전에 조기에 예방하거나 초기 발견 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다른 요인들에 비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를 이용하여 구강건강수준을 파악하고, 구강건강관리행태를 조사하여 그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행태를 살펴본 결과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50대는 92.3%, 40대는 60.0%로 40, 50대 이상에서 높은 비율로 조사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¹⁰⁾, 신¹¹⁾, 김¹²⁾, 유¹³⁾의 연구에서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질병에 이환될 빈도가 높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0대가 30.8%, 40대는 25%로 나타나 연령별 건강교육경험의 유무는 40대, 50대가 주로 건강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¹⁴⁾의 연구에서 건강교육 전보다 건강교육 후에 건강증진행위의 실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의 건강증진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이 50대에서 5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에서 78.6%로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박¹⁵⁾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 수록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의 경우 시간적 제약이 많고 구강질환이 기능적으로 큰 불편함을 미치지 않거나 누진적인 구강질환의 특성과 관련되어 연령이 높을 수록 저작과 관련된 기능적 측면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⁴⁾, 정¹⁶⁾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구강진료기관이용 횟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변수가 구강질환으로 인한 학업수행지장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향후 예방진료 목적의 방문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치석제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84.6%, 40대에서 55.0%로 주로 40대와 50대에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치석제거를 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에서는 20대에서 66.5%, 30대에서 55.6%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박¹⁵⁾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 수록 치석제거의 경험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구강위생용품 사용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대에서 88.9%, 20대에서 83.9%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검진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살펴본 결과 먼저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구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률이 53.2%로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치석제거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63.2%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구강관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는 응답자가 구강관리에도 주력한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에서 구강위생용품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직까지 구강위생용품사용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결과로 생각되어 구강위생용품의 대중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DT, MT, FT rate, DMFT index를 살펴본 결과 먼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에서 DT rate가 30.7%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에서 MT rate는 24.6%, FT rate는 24.6%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DMFT index는 12.3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채⁸⁾, 정⁹⁾의 연구에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용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 49.4%,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경험과 용품사용과의 관련성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 87.5%,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채⁸⁾의 연구에서도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치과에서 권해서라는 응답이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과 홍보를 하여 동기를 유발할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정기구강검진 유무에 따른 DT, MT, FT rate, DMFT index를 살펴본 결과 먼저 정기구강검진을 한다는 응답자에서 DT rate가 20.8%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⁴⁾의 연구에서도 치아우식증이 있는 근로자중 지난 1년간 치과병원에 내원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가 62.6%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기구강검진을 한다는 응답자에서 MT rate는 28.8%, FT rate는 28.8%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DMFT index는 12.8로 정기구강검진을 한다는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⁹⁾의 연구에서 구강위생용품사용을 권장한 사람이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73.2%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싶은 곳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⁷⁾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치과를 통해서 한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가 치과내원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의식을 제고함과 아울러 주기적으로 내원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치석제거 경험 유무에 따른 DT, MT, FT rate, DMFT index를 살펴본 결과 먼저 치석제거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DT rate가 24.6%, FT rate는 27.1%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치석제거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MT rate는 27.1%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DMFT index는 12.2로 치석제거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 치석이 치아우식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박⁴⁾의 연구에서는 치면세마를 받은 성인이 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치면세마에 대한 교육이 역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수집된 자료가 경기도에 소재한 치과의원에 한정되었고,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20대에 편중되었으며, 구강건강수준을 DMFT로만 조사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연령층을 고려하고, 구강검사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프로그램에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성인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를 조사하여 구강건강수준을 파악하고, 구강건강관리 행태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리행태 중에서 어느 요인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경기도 소재 치과의원에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내원한 환자 219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사와 설문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행태를 살펴본 결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이 50대는 92.3%, 40대는 60.0%로 높게 조사되었고, 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이 50대에서 53.8%로 높게 나타났고, 치석제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84.6%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건강검진의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살펴본 결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에서 구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이 53.2%, 치석제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3.2%,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건강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에서 DT rate는 30.7%, MT rate는 24.6%, FT rate는 24.6%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에서 DMFT index는 12.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5. 정기 구강검진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수준을 살펴본 결과 정기 구강검진을 한다는 응답자에서 DT rate가 20.8%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MT rate, FT rate는 각 28.8%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기구강검진을 한다는 응답자에서 DMFT index는 12.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치석제거 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수준을 살펴본 결과 치석제거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DT rate가 24.6%, FT rate는 27.1%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MT rate는 27.1%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치석제거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DMFT index는 12.2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구강건강관리행태와 구강건강수준과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개인의 구강건강수준별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등 적극적인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장기완. 맹인의 구강보건관리실태 및 구강보건진료수요에 관한 역학조사. 대한치과의사 협회지 1984.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4.
3. Board of Trustee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 Parameter on systemic conditions affected by periodontal disease. J periodontol 2000;71:880-883.
4. 이재승. 일부 수도권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그 연관요인.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5. 김영남. 한국 성인의 구강건강인식에 관련된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6. 최연희. 구강상태와 전신건강과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7. 이정희. 구강보건 인식과 실천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 채말선. 치과 병·의원 내원환자들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실태 분석. 대구한의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9. 정명옥. 치과병원 내원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실태.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 전은주. 대학병원 검진고객의 만족도에 따른 재이용 의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1. 신영균. A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고객의 특성과 고객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2. 김희경. 한 종합건강검진센터 이용자의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요인.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3. 유소연. 종합병원 정기 건강검진 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4. 김령은. 성인의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건강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5.
15. 박경섭. 충남지역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건강수준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6. 정기천, 이홍수, 김수남. 앤더슨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진료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27(3):357-373.

ABSTRACT

A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e and oral health care of dental clinic patients

Mi-Young Gwon

Dept. of Dental Hygiene, Su-won Science College

Key words : oral health state, dental checkup, oral health c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care of adults using dental clinic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oral health state and oral health car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19 patients who visited dental clinics in Gyeonggi province between February and April 2008. A dental checkup and survey were implemented, and SPSS 12.0 program was utiliz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DT, MT and FT rates of the respondents who used oral hygiene supplies respectively stood at 30.7, 24.6 and 24.6 percent, which were all low. The gaps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MFT index of the users of oral hygiene supplies was 12.3, which was high,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The DT rate of those who got a dental checkup on a regular basis stood at 20.8 percent, which was low. The gap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the MT and FT rates of the former numbered 28.8 percent, which was low, but the gap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DMFT index of the respondents who got a regular dental checkup was 12.8, which was high, and the gap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The DT and FT rates of respondents who had ever had their teeth scaled respectively stood at 24.6 and 27.1 percent, which were both low,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T rate of the former was 27.1 percent, which was low, but the gap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DMFT index of those who had ever had their teeth scaled

was 12.2, which was high, and the gap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was a very clos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care and oral health status. Therefore people in general should be encourag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ir own oral health care, and they should be well informed about how to take care of the oral cavity to promote their oral health.